



환경에 대한 관심은 2020년에 그치지 않는다

1. 경기 상황과는 달리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EUA

- 지난 주 유럽에서 거래되고 있는 탄소 배출권(EUA) 가격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
- 경험적으로 유로존의 경기 사이클과 밀접한 연관성을 보이는 가격지표이나 부진한 경제 활동에도 불구하고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는 점은 환경 부문에 대한 관심의 방증이라고 해석할 수 있을 듯

2. 친환경 테마 ETF에 대한 폭발적 관심 지속

- 친환경 산업과 관련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에너지원과 관련해서 친환경 에너지 관련 ETF들의 상승세에 주목해 볼 필요
- ICLN 등 글로벌 대표적 친환경 ETF들의 평균 수익률은 +180%대를 기록(자산 규모 기준 Top5 단순 평균)
- 수익률 뿐만 아니라 해당 펀드들의 자금 유입도 상당히 가파른 속도로 진행 중인 모습

3. 다양한 분야에서 관심이 형성 중

- 에너지원 뿐만 아니라 수요 측면과 관련된 산업에 대한 관심도 점증
- 2차 전지 관련 ETF에도 자금 유입이 강화되고 있으며, 수소 밸류체인과 관련된 연료전지 기업들의 주가 역시 강한 상승세가 지속
- 친환경과 관련해 정부들의 목표 자체가 광범위하게 제시되고, 이제 막 적극적인 움직임들이 행해지는 상황 하에서 지엽적인 접근보다는 유관 산업에 대한 폭넓은 관심이 필요해 보인다는 판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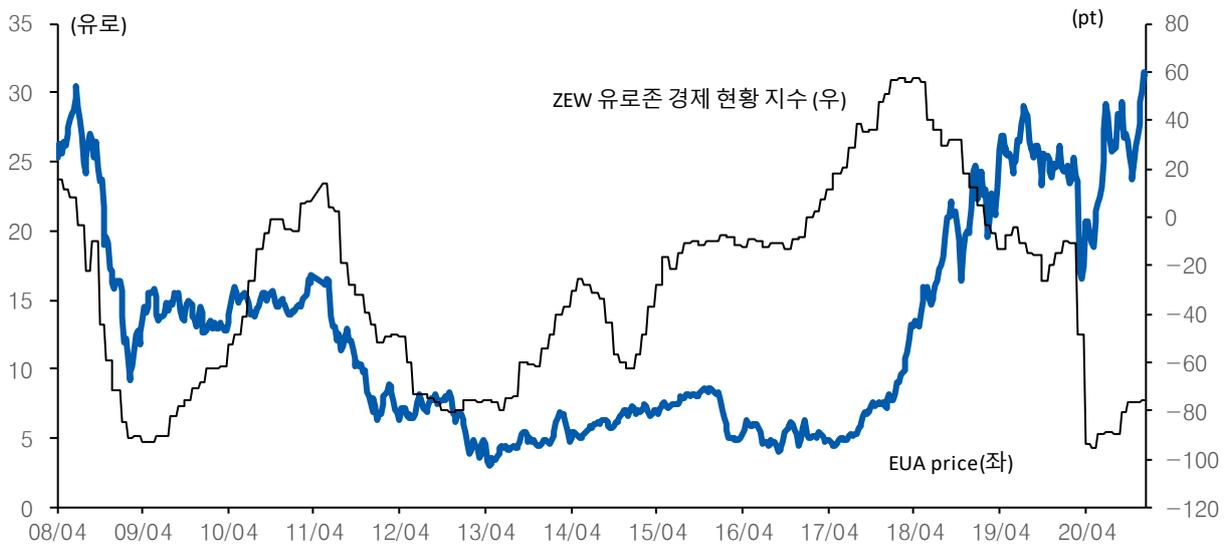
주식시장 투자전략

1. 경기 상황과는 달리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EUA

지난 주 당사 펀드 애널리스트가 21년에도 환경 이슈를 중심으로 ESG에 대한 관심이 높을 것이라는 자료를 발간한 바 있다. ESG는 환경뿐만 아니라 세 가지의 테마를 총칭하는 개념이지만, 그 중 환경에 대한 관심이 가장 직관적으로 느껴진다. 사실 올해 전 세계적으로 가장 각광을 받았던 테마 중 하나이며 국내 개별 주식들 가운데도 가격 부담 논란이 형성될 만큼 뛰어난 퍼포먼스를 보인 종목들도 많다. 그러나 개별 종목의 과열 논란을 차치하고 중기 이상의 관점에서 관심을 가져야 할 분야라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 이와 관련해 살펴 볼 만한 몇 가지 눈에 띄는 모습들을 간단히 살펴 보고자 한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그림 한가지가 유럽 탄소 배출권의 가격이다. 유럽에서 거래되는 탄소 배출권(EUA)의 가격은 지난 12/21일 기준으로 31.47유로였는데 이는 역사상 최고치 가격이다. 산업활동이 활발할 때 제조업체들은 보다 많은 공해 물질을 배출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만큼 탄소배출권은 기본적으로 산업활동과 연관이 있다. 그러나 함께 그려 둔 바와 같이 유럽의 현재 경기 상황은 그리 좋다고 보기는 어렵다. 결국 현재의 산업 업황과는 별개로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높게 형성되고 유지 중이라는 해석이 가능해 보이는 모습이다.

[차트1] 일반적으로 탄소배출권 가격은 경기 사이클과 유사한 흐름을 보임. 그러나 경기가 침체에 준하는 상황을 경험하고 있는 시점에서 사상 최고치의 탄소배출권 가격이 형성되고 있다는 점은 의미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



자료: EMBER, Bloomberg, 유안티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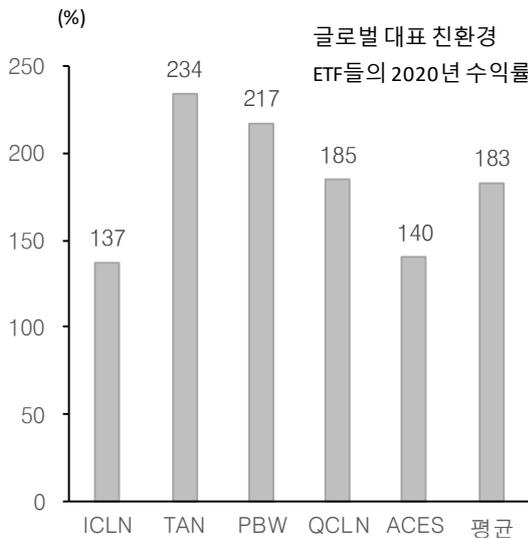
주식시장 투자전략

2. 친환경 테마 ETF 에 대한 폭발적 관심 지속

태양광이나 풍력 등 신재생 발전원들의 확산이 진행될 것이라는 전망치들을 쉽게 찾아 볼 수 있는데, 이 같은 전망치가 아니라도 금융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상품들의 퍼포먼스만 보더라도 관심의 정도에 대해서는 쉽게 유추해 볼 수 있을 듯 하다. 우선 관련 ETF들을 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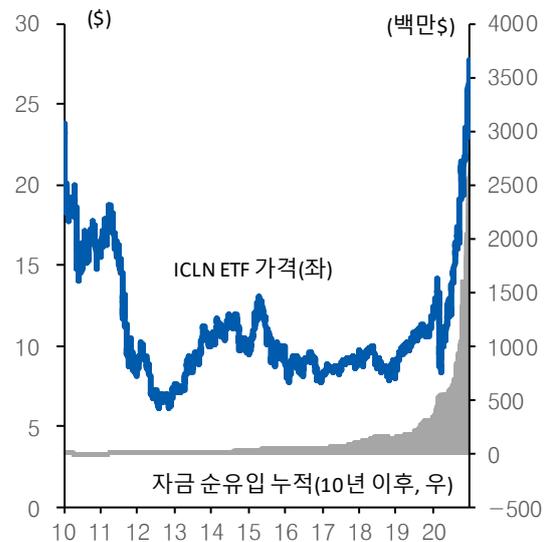
미국에 상장된 글로벌 친환경 부문 대표적인 ETF(자산 규모 상위)들로는 ICLN (iShares Global Clean Energy), TAN(Invesco Solar), PBW(Invesco WilderHill Clean Energy), ACES(ALPS Clean Energy) 등이 있는데, 이들의 20년 한해 성과를 보면 실로 뛰어나다. 평균 연간 수익률은 182%에 달하고, TAN ETF의 경우는 연간 수익률이 234%를 기록 중에 있다. 규모면에서 가장 큰 ICLN ETF의 경우 코로나 이후 가격 측면에 있어 가파른 상승세도 상승세지만, 자금 유입 속도가 매우 빠르게 진행 중이라는 점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2010년 이후 자금 순유입 금액을 누적해 보면, 올해에만 570%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올해의 경우 미 대선을 앞두고 다소간의 출렁임이 있었지만 이를 제외하면 꾸준한 자금 유입이 이루어지며 금융시장에서 가지고 있는 친환경 부문에 대한 관심을 대변해 주고 있는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을 듯 하다.

[차트2] 미국에 상장된 친환경 부문 Top-tier ETF 들의 2020년 수익률은 시장의 관심을 대변해 주는 것으로 볼 수 있음



자료: Bloomberg,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차트3] 친환경 부문 대표 ETF 중 하나인 ICLN 의 자금 유입 흐름 역시 시장에서의 관심이 매우 높음을 나타냄



자료: Bloomberg,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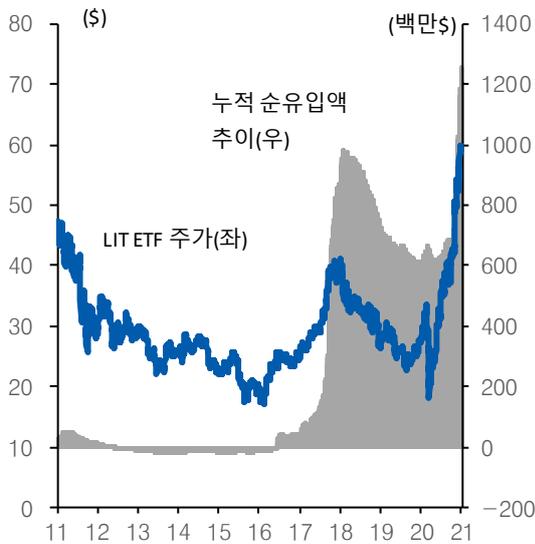
주식시장 투자전략

3. 다양한 분야에서 관심이 형성 중

앞서 언급한 태양광, 풍력 등 발전원과 관련된 ETF들 외에 기타 친환경 산업 관련 금융자산의 긍정적인 퍼포먼스도 찾아볼 수 있다. 친환경 산업에서 빼 놓을 수 없는 전기차와 관련해 2차전지 관련 ETF도 뜨거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대표적인 ETF인 LIT(Global X Lithium & Battery Tech)의 경우도 올해 기록한 연간 수익률이 118%에 달하며 그림에서 볼 수 있듯 자금 유입 또한 빠르게 진행 중이다. 한편, 지난 해 유럽의 수소 로드맵 도입 이후 관심이 더 강해지고 있는 수소 부문과 관련해서도 Bloom Energy나 Ballard Power System 등 주요 종목들의 상승세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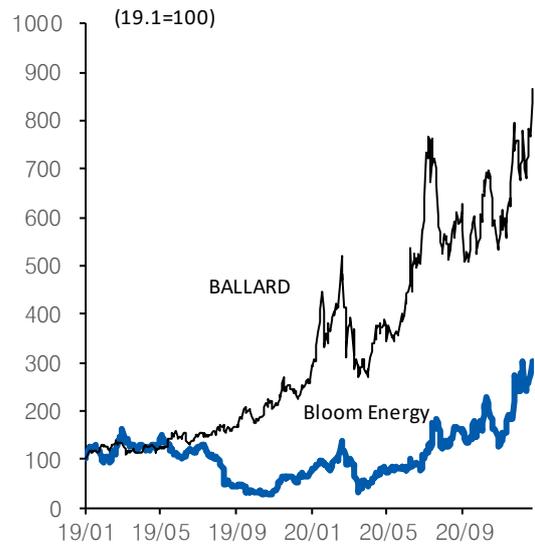
이상의 내용들을 종합해 보면, 친환경 부문과 관련해 상당히 폭 넓은 범위에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주요국 정부들이 빠르면 2035년에서 2050년까지 탄소 배출 net zero의 정책 목표를 제시하고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특정 부문의 지역적인 변화가 아닌 전역적인 변화가 동시에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때문에 투자자 관점에서도 에너지원에서 최종 수요처까지 다양한 부문에 대한 폭넓은 관심이 필요해 보이는 상황으로 판단된다. 단기적인 가격 부담이 존재하고 이에 대한 조정 과정은 언제고 출현할 수 있겠지만 보다 긴 안목에서 관련 테마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다.

[차트4] 2차 전지 밸류체인을 투자 대상으로 하는 ETF에 대한 관심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모습



자료: Bloomberg,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차트5] 수소 경제와 관련된 연료전지 관련 해외 종목들에 대한 관심도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모습



자료: Bloomberg,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